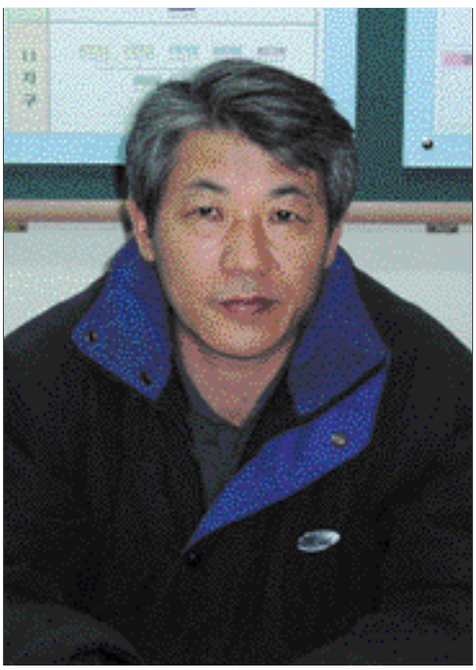
28~29이사람-3 2005.3.16 1:7 PM 페이지29 001 Acrobat™ PDFWriter

현장의작업환경개선으로생산성제고

이종훈 삼성중공업 순화동 삼성생명 현장 총괄 소장

"환경과 안전과 품질은 한 몸입니다"

'음악이 흐르고 꽃길이 있는 건설 현장.'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순화동삼성생명빌딩현장에서는종일음악이 흐른다. 안전 통로는 꽃길로 단장되어 있다. 현장 내부의 꽃은 투명한 방음판을 통해 외부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현장 한쪽에마련된카페에서차를마시는근로자들도심심치않게볼수있다. 공원같은현장이다.



"밝고명랑한분위기를조성하고생산성을높이자는목적에서음악방송을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 나오는 건설기계의굉음과발파음이음악소리에묻히면서 민원을 줄이는 효과까지 가져왔습니다." 삼성생명순화10, 11지구의이종훈총괄소장은 '환경 = 안전 = 품질'이라는 철학을 갖고있다. 현장작업환경을개선하면, 근로자들의 정서적 안정감이 고취되고 자율의식이 높아져 작업에 집중함으로써 결국 시공의질이높아진다는것이다.

현장을 이처럼 공원처럼 만든 아이디어를 이종훈 소장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찾았다고한다. 고객의눈길을끌기위해실내분위기를밝고격조있게만드는모델하우스를현장에도접목해본것이다." 가령장사가 잘되는 음식점을 보면 대개 맛, 서비스, 분위기 등 특화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도현장도마찬가지입니다. 특화된한두가지요소는갖고있어야관심을끌고생산성도높일수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이 단순히 작업 환경 개선만으로 구현되기는 쉽지 않다. 생산성을높이는주체는직원들과건설근로자들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자발적인참여가 없다면 자칫 전시 효과만을 노린 치장에 불과할뿐이다. 이에따라이종훈소장은자신을낮추고근로자들을배려하는조치를해나갔다. 기구조직도상가장낮은곳에그려져있는 '현장대리인'칸이그단면을잘 보여준다.

음악 방송은 건설 근로자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매일 근로자들로부터 신청받은 음악을밤에MP3로 제작해 다음날 틀어주고있다. 여기에현장곳곳에난방시설과 파라솔 등을 갖춘 휴식 공간을 마련해 추운 겨울에도 근로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흡연장소까지 따로 마련했다. '웃고 작업에 임하자'는 취지 아래 매일아침체조후난센스퀴즈를실시하면서 근로자들의긴장된마음을풀고있다. 화장실도 직원들과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하였다.

그 효과는 기대이상이다. 우선, 건설근로자들이매우만족스러워하고있다. 회사가 자신들을 단지 하도급 회사의 근로자로 보지 않고 함께하는 동료로 배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잠깐머물렀다떠나는객체가 아니라 자신의 일터를 일구는 주체가 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종훈 소장은" 협력업체 사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곳 현장의 생산성이 다른 곳에 비해 20 30% 정도 높다고 말을 한다"며 회사와 협력업체가 서로 win - win하는 셈이라고설명했다. 여기에음악방송과꽃전시를 통해 지난해 6월 착공 이래 단 한 건의 민원도일어나지않고있어돈으로계산할수 없는무형의효과를톡톡히누리고있다.

이종훈 소장은 이제 건설 환경이 바뀌고 있는 만큼 현장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지시하고통제하는시스템에서탈피해함께 연구하고자율성을발현토록하는체계를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정년 퇴임후에도촉탁으로12년동안재임하셨던 한 선배 사원 밑에서 8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것을배웠습니다. 저역시갖고있는노하우를 갈고 닦아 후배 사원들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이 책무라생각합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